

준공 5년지남 옥내 급수관 1년주기로 정기검사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 중 준공 검사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 탁도 등 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받아야 한다. 또 검사 결과 탁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24시간 이내에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도관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

무등산·금당산 등 광주 주요 산 우량 숲으로 가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솔껍질깍지벌레 등 대대적 방제 하기로

광주시가 무등산 등 시내 주요 산의 숲을 우량하게 가꿔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9일 무등산 주요 산림 130ha에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도심권에 심어진 소나무에 대해서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생육이 약한 소나무는 주변환경을 개선한 뒤, 영양제 등을 뿌려 우량 나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내린 폭설로 전남도의 소나무가 대거 고사하거나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주시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또 사라져 가는 소나무 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무등산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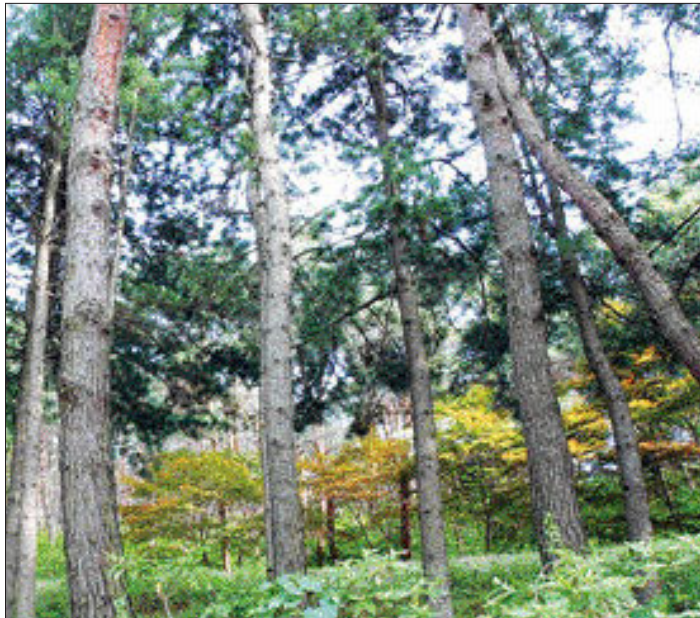
한편 시는 남구 금당산(115ha)과 북구 군암봉 일대(165ha)의 나무들이 지나치게 뻗뻗해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 이들 숲의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해 생장과 하층 식생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솎아내는 과정에서 이미 말라죽거나 병해충이 발생한 나무가 발견되면 모두 제거해 병충해의 확산을 저지할 예정이다.

시는 등산로 주변 공한지를 활용, 경관립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벤치,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의 산림공원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가꾸는 것도 심는 것 이상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사업으로 광주를 소나무 병해충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솔껍질깍지벌레 = 소나무의 가장 큰 적으로 꼽히는 병해충으로 다른 해충과 달리 여름에 휴면하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액을 빨아먹는다. 솔잎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4~5월에나 나타나 조기발견은 어렵지만, 주로 활동하는 겨울에 주사를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



광주시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무등산 소나무. 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차적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광주 내달 15일부터 시행

올 13만4천여대 검사 받아야 다음달 중순부터 광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도입, 자동차 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인천·부산·대구·경기도에 국한됐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광주까지 확대, 다음달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검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4년 이상 된 차이며, 승합차 등은 3년 이상이다.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없이 2년 이상 된 차가 검사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13만4천여대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사결과, 가솔린과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 항목 중 1개 이상이 기준치의 200%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한다. 경유차는 120% 이상일 때 정비 대상이다. 정비를 하지 않은 차는 30일 이내는 2만원, 초과시 매 2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돼 최대 50만원까지 물게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 물질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미세먼지의 70%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정착되면 대기오염 농도를 30%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최대 60% 할인! 신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 할인 행사!

**패션모직 outlet** 전대월구 사거리

- 패션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60~40% 할인**

신상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행사!

신상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행사!

신상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행사!

**이태리지구 전문점**

**홍 스키이스 .kr**

홍구 장충로터리 (비행-편안고사대) 082) 226-7565~7

스포츠 이음잇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아웃도어 스키웨어) 100459.com

**OPEN** **성인나이트클럽** 30세 미만 절대 출입금지 (ROOM 도우미 대기)

7월 5,6일 **맥주기본무료** 오픈축하쇼!

7일(금) **박강성** 8일(토) **최성수** 11-12일(화수) **조양조** 13-14일(목금) **김수의** 20-21일(목금) **박진도** 25-26일(화수) **에은이**

**30세 미만** **한국관**

광주 롯데백화점 맞은편 (구)서울나이트 예약문의 062) 226-9333,4